

포큐파인 2호 후기

엘모: 아 정말 힘든 마감이었어요. 사실 내용도 별로 없고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귀찮아즘 때문에 힘들었죠. 나란 인간이 얼마나 게으른지 알게 되었다는... 이런 실보 때문에 마감이 3 주씩이나 늦어졌다는... TTT 근데 더 웃긴 건 마감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잡지가 만들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해진다는 거! 이런 마치 취미로 책 읽을 때랑 과제 때문에 책 읽을 때의 차이와 비슷한 건가?!

여러분, 다음 학기에 봐요(아마도). 슈비슈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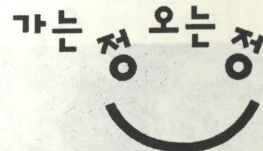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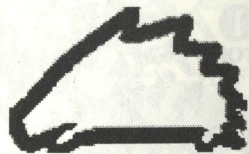
홍무: 알라라 사람이 줄어가요. 그러니 포큐파인이 계속 보고 싶다면 아껴드시라게요. 캄캄이 매체 내기란 녀 어려운거 같아요. 사실 열정만 넘칠 뿐 재능은... ㄷㄷ 이번엔 게스트분들도 많고 해서 참 기뻐요. 1호 출간하면서 독자분들의 작은 문자 하나에 까아 까아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건 매체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거 같아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잘 전해졌을랑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2호가 나오니 부끄럽지만서두 넌넌 행복해요.

포큐파인에서 신입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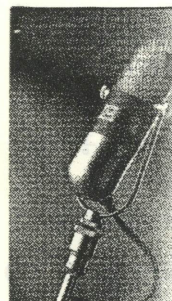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지원해 주세요!

지원 신청: 엘모 010 5104 8929

아니면 jainrhee@naver.com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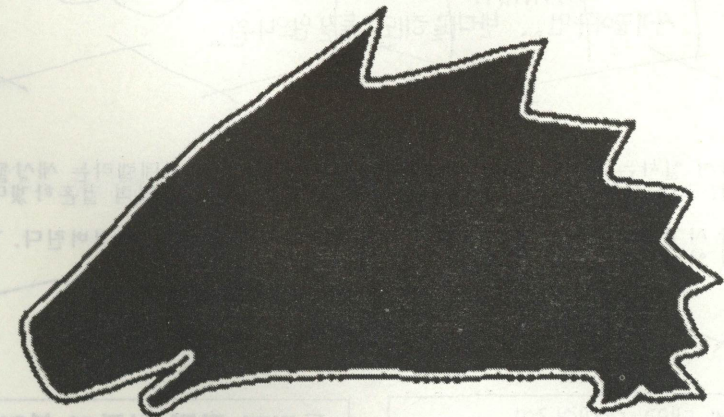
후원해주신 쭈꾸미
노래방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쭈꾸미 노래연습장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2-85
TEL : (02) 322-7952

포큐 파인 porcup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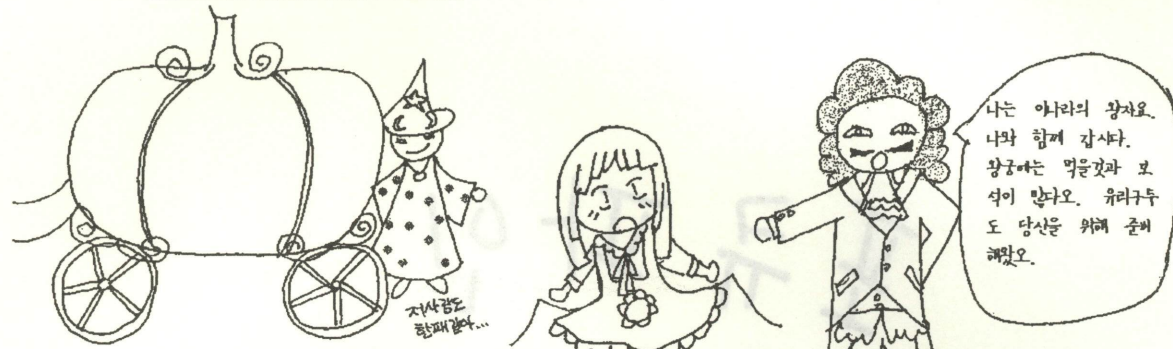
♡여대생들을 위한 만화 잡지♡

-제2호-



동화 뒤집어 보기!

by 울무



엄마... 우리 막내 언니애매 되는거유?

딱 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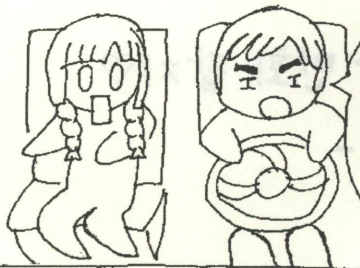
사기꾼이유면... 반대를 해도 듣질 않으니...

사실은 이랬다??

아직 어려서 나가서 일하는 두 언니와는 다르게 집안일만 거들었던 신데렐라는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다녔다는 왕자님(?)이 나타나자 덜컥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엄마와 두 언니가 사기꾼이라며 반대를 해도 자신을 질투해서 그런다고 여겨버린다. 거기다 더 해 자신이 친딸이 아닐거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데...!!

① 여자로 차에 태우고 안내려 주기

이게 미쳤나?



못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리지 못해!!

드라마 장면 뒤집어 보기

- 낭만적인 드라마 장면을 현실적으로 재현한다면...? -

② 막무가내식

다짜고짜 벽에 밀어붙이기

누구나 넌? 이제 맛있게 생각하는가??



특집: 피 쏟아도 안 죽는 그 날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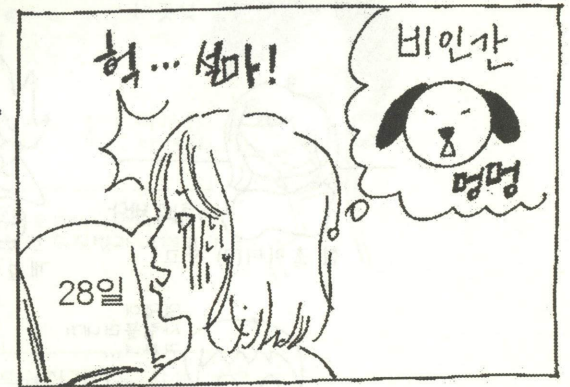
부제: 하반신 절단 욕구 상승중 by 엘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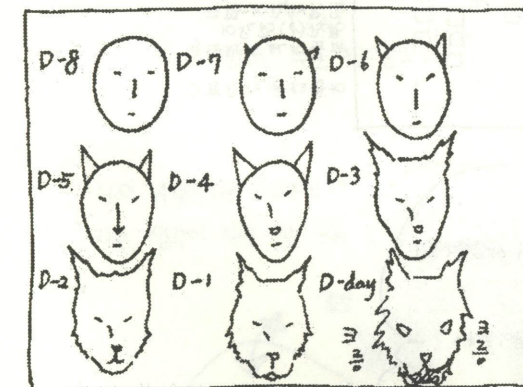
생리하는 날은 참 괴롭죠..피나고 피가 납니다. 일주일 동안 피를 흘려도 죽지도 않고 허리 아래로는 잘라서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죠. 몇 가지 생리유형을 모아 봤습니다.

생리유형1: 그 때가 좋았지 예전에 생리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파서 행운아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생리하는 것이 큰일이 되어 간다. 난 벌써 늙어버린 젠가?

생리유형2: 생물책에는 인간의 생리주기가 28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나는 뭐지...? 정녕 28일마다 피 쏟는 녀자가 존재한단 말인가? 존재한다면 전체 녀인의 50%, 아니 30%는 될까? 내 주변 사람 중에 없는 것 같은데... 재는 두달에 한 번, 나는 5개월에 한 번, 너는 기분 내킬 때마다 한 번!



생리유형3: 한 달에 한 번씩 페이스 오프 생리할 때쯤 되면 나는 얼굴이 변해. 점점 괴물이 되어가다가 생리 시작하면 점차 인간으로 돌아와. 아 이거 뭐 내가 늑대인간도 아니고. 여자는 여우라는데 나는 늑대였어....ㅠㅠ



* 그 밖의 생리유형들....

생리유형4: 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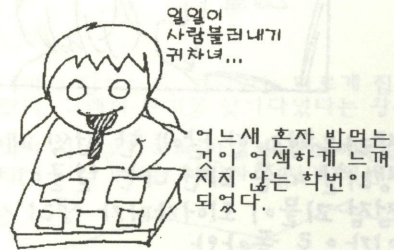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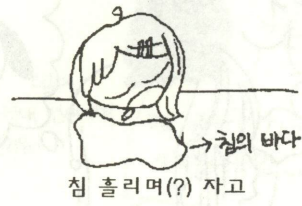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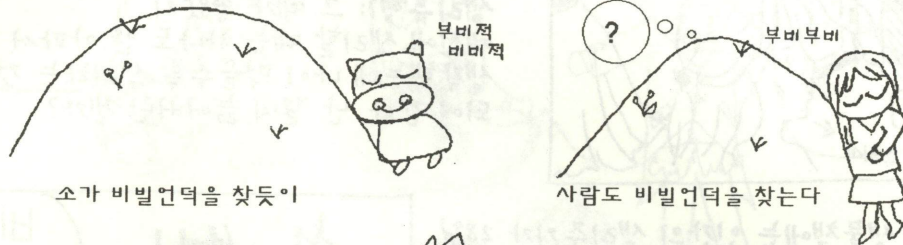
생리유형5: 내 피는 7 빛깔 무지개



생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연재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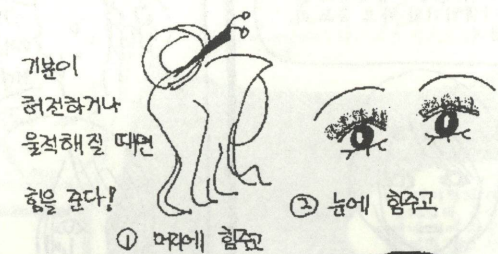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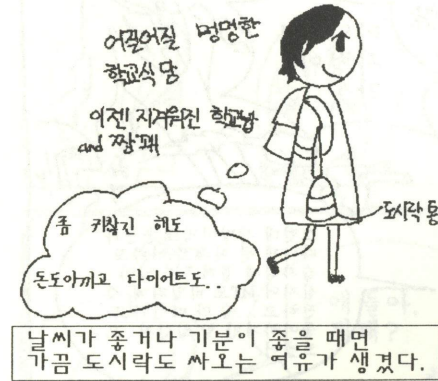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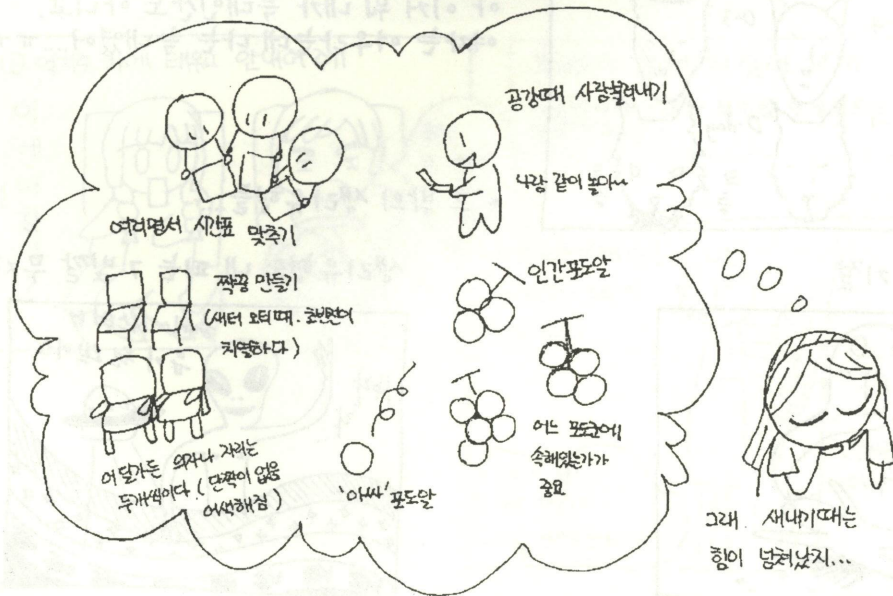
학교 다니다 드는 단상들 by 울무

나의 비밀언덕은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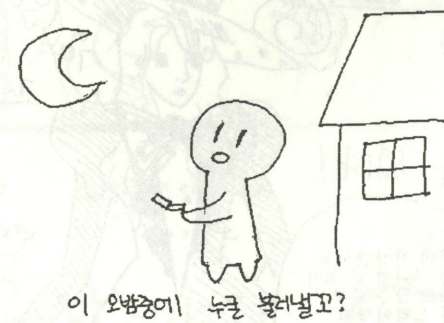
	月	火	水	木	金
1					
2	□	□			□
3	□	□			□
4	□				□
5					□
6					□
7					□
8					□

점심시간이 없는
알찬(?) 연강이
부듯하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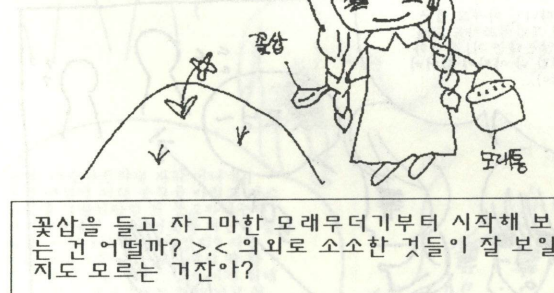
'언니' 포스로 무장하고 머리랑 얼굴에 힘을 뺏! 주어서 기분을 풀기도 한다.
(이렇게 변장? 을 하다보면 신기하게도 기분이 바뀐다 ㅋㅋ)

학교 오래다니면서 느낀 화장법과 고대기 기술 ^^;;



문득 외로워지기라도 하는 날엔 괜히 핸드폰 저장목록을 뒤지며 방황하곤 한다.

"나의 비밀언덕은 어디에?" 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



보송보송
제2화: 그의 정체(?!)
by 엘모

난 말이지, 언제나 술자리가 싫었어. 어색하기만 하고 술도 마시기 싫고.

재명이는 왜 밝은 거야!!
짜악-!! 지렁이 각질

그런데 사방아방송송과 다니게 된 이후로 아루도 술자리에서 불려주지 않아. 추심지어 MT도 비밀리에 추진하고... 술 안 마신다고 좋아하지만 할 일인지 모르겠어.

※ 주: 1화 참고

난 언제나 사람들이 내 옷차림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게 싫었어. 내가 뻥가미 머리를 하든 요점 자기를 하든 상관이야? 내 화장품을 사라고 보태줬대? 스킨은 화장하고 안 다투는 게 맞잖아? 그런 소리 듣는 거 싫어. 나 술금 모르면 그게 아니.

경남: 양상사, 여인네

내 빨간 양파망이냐고 한 거 누구야?!!

저... 족다!

근데 사방군하고 보이 지도 않는 존재가 된 편이기도 하면 설사... 요한 결심 이 생긴 걸까.

진행: 만다린 토너

코스프레??

난 자꾸 남자들이 작열하는 게 고민이었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난감하잖아. 문장을 해줬다고 제멋대로 오해하고 그대했잖아 난 조랑이야!

근데 사방군하고 다니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아! 심지어 도인들조차도 50m 내로는 진입하지 않는다는 거! 신기하긴 한데 이래로 가면 나 아파가 되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굿모닝~

50M

프하게 우리 둘도 있는 거 같은 한테 말이지... 사방군은 대체 정체는 뭐야? 그거 분명 맞아??

정말로 우리 학교 학생만나? 수업시간에 출석부르는 거 본 적 있어? 어느 나라 사람일까? 동양인이긴 한거야? 수상해 수상해!

머릿머리서 무슨 맛을 느끼는 거야? 도대체 그 센스는 어디서 오는 거지?

애들아, 뭐해?

흠...

소문에 의하면, 프랑스 귀족이라는 얘기가 있어(근데 프랑스에 귀족이 있긴 있나?). 유독 브에서 무뎌히 동방신기를 본 이후로 한류 매니아가 되어서 한국으로 코한 학생 온 거야~

도대기업의 제법 2세라는 소문도 있다는데, 본이 아주 넓쳐서 물려서 재네 집에 가면 번기도 으르세 공되어 있고 컷슬은 스왕롭스이.. (그걸 왜 음으로 받드는대?)

이건 내가 확실하게 들은 거야!!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극심한 조를 동반자대!!! (...그렇듯 한대...!)

사실 흑인이래.. (뭐?) 마이클 잭슨처럼 표현했다는 소문은... =

위험한 거 아니냐?

하... 저게 "말"이라고?!

크롱

사방군이 앉았던 자리

어머, 아슬아슬하게 지각 아니네!! 오늘 아침에 머리 손질을 마치고 마스크를 처방받았던 뒤 등교하려는 때 이스탄불에서 -가 연회를 여는 데 참 확 할 수 있냐고 묻는 거 있지? 지난 여름 베니스의 사교 모임에서 딱 한 번 봤을 문안대 부답스럽게 이제 뭐해... 그래서 내가 "저도 정말 가고 싶지만 지금 재를 출격이 위해 워터에서 가지 못할 것 같아용" >x< "이라고 완곡하게 거절하니깐 글세 이 사람이 그럼 연회에 참석하고 갔다는 설 도와달라는 거야. 물론 나의 장악은 06년 도문/8공백선에 도나벨라 베르사체를 도운 것으로 입증된 적이 있긴 하지만☆이후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지각할 지경이 됐지 뭐야? 그런데 마침 리무진에 독주수 씨 기일이 떨어지자 급하게 도나의 애마인 "로비"의 등에 타고 함께 연회로 뛰어왔어~

사방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에 대한 의혹은 깊어지려만 갔다...

★문제) 다음 중 이 상황에서 가장 수상한 점을 고르시오.

- ① 로비는 어쩌면 어쩌면 말이 아니라 공룡일지도 모른다.
- ② 하인의 옷차림에 핏자국이 있다.
- ③ 로비가 이빨을 드러내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빛나는 게스트 코너

기억해내기
그리고
다시...

-독자-

어렸을 때 부터
생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책에는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걸 처음 깨달은 소녀가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가는
얘기가 있었다.

엄마... 나...
아니란다
그건
진정한 여자가
되는
의미야.

그랬다.
난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여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는 '되는' 거였다.

나는 첫 생리를 축하받았고 그건
굉장히 세련된! 방식인 것 같아 보였다.

그 때 당시의
사진을 꺼내보면
나는
볼이
발강게
상기 되어있었고
굉장히
부끄러운
모양새였다.

우리 엄마는 무엇을 축하하고 싶었을까?
나의 결혼 할 모습을?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2차 성징을?

과당

사실 처음에 가슴이 나왔을 때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그게 너무 싫었다. 나의 '자유'가
날아가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
이었다.

모래 사막?

지금도
브래지에는
항상
와이어를 땀다.

요새 나는 생리를 떠올릴 때
내 몸이 소름끼칠 때가
종종 있다.

영양분

나는 이 임신을 위한 영양분
축적을 위해 생리 전에
미친듯이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생리가 시작되면, 그 모든
식욕을 잃어버리고 만다.

나의
영양분
회전이

피자
달리기
GOAL

마치 내가 임신을 하기 위한 길다란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모든 게 너무 섬뜩해지는 것이다

가끔 침대에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을 때
동생이 물어본다.

"그렇게 많이 아파?"

데굴 데굴

그러면 나는 내가 흘리는
모든 피를 모아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손가락을
살짝 베어서
아주 조금
피가
나는
것도

이렇게
아픈 데 말이다.

무언가 속 시원히 아무말이라도
그냥 내뱉어 버리고 싶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입을 열어서,
아무나 붙잡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 소리쳐 말해

독자님의 만화 무척 감사합니다.(구벽^^)

게스트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만화나
그림을 모집합니다. 못그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와 감성이 듬뿍 담
겼으면 그걸로 대환영이에요♥

게스트 코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울무 01047163808로 연락주시거나,
roro13@naver.com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다음호는 9월에 나오니까 9월 첫째주까지
보내주시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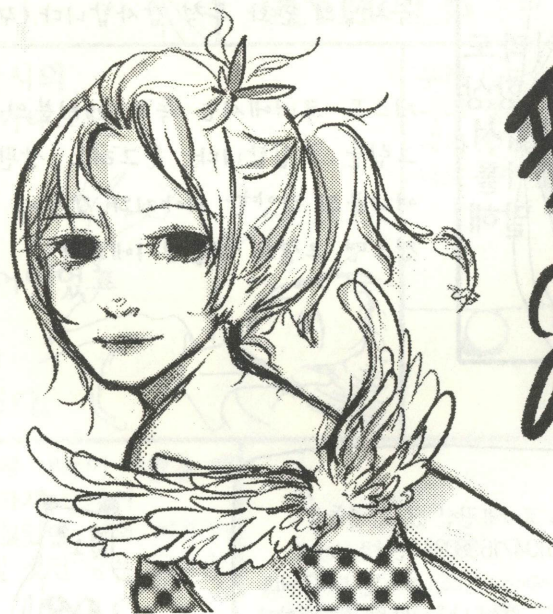
빛나는 게스트 코너 *축전



포큐파인 2호 발간 축하드립니다!

20090513
by 김영

by 김영



포큐파인
2th Book
축하해요♡
By S M

by 수민

♡ 포큐파인 2호 발간을 맞아 축전을 보내주신 김영씨와 수민씨께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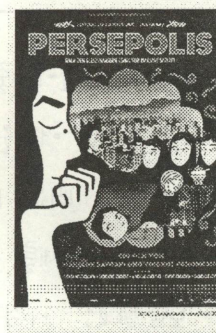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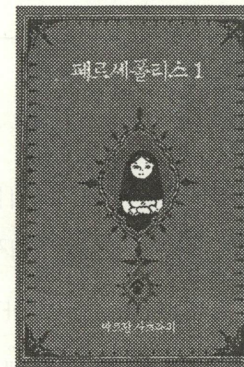
포큐파인이 추천하는 만화 이야기



울무의 추천 - <페르세폴리스>

이란출신의 작가가 프랑스에서 낸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유명한 만화!! 이란에 대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느낄 수 있어. 주인공인 마르잔은 이란의 혁명과 반혁명, 전쟁을 겪으며 성장하는 여자아이야. 베일쓰기를 강요당하는 것, 서구문물에 대한 감시 등에 대해 아이다운 발칙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보는 사람이 다 웃음이 나온다구. 강압적으로 쓰게 된 차도로로 말타기 놀이를 하며 갖고 놀고, 차도로위에 핑크자켓을 입고 다니는 귀여운 소녀의 눈을 통해서 우리와 비슷한 이란 소녀/여성을 만나보아 봐. ^^

ps. 우리나라에는 두권짜리 책으로 출판되었어.



엘모의 추천 - 토노의 <칼바니아 이야기>

칼바니아라는 가상의 나라에 사는 여왕님 타니아와 차기 공작 에큐에 관한 이야기다. 칼바니아는 대대로 남자가 통치하는 국가였지만, 젊고 예쁜 타니아가 즉위함에 따라, 남녀구조의 격변을 겪게 된다. 타니아는 이웃나라 왕자님과 외교모임에서도 잠을 참지 못하는 덜렁쟁이지만, 그 옆에는 에큐가 있기에 두렵지 않다! 에큐는 타니아와 소꿉친구인 여자...아인데, 삼박질이나 성질머리에 있어서 따라올 자가 없다. 에큐 역시 타니아가 즉위하게 되면서 남자들로만 세습되어왔던 공작 직위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뭐, 다소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직접 읽어보면 상큼 발랄한 만화책이다! 어딘가 나사 하나 풀린 것 같은 불안한 여왕님 타니아,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평판이 오락가락하는 에큐가 함께하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무척 흥미롭다. 무엇보다도, 캐릭터들이 너무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라서 더욱 그렇다. 마냥 웃기기만 한 것 같으면서도 간혹 가다가 캐릭터들의 진실한 내면을 보여주는 한 컷을 만날 때가 있다. 할일 없는 오후, 따뜻하고 진실된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면 칼바니아로의 여행을 추천한다~!